

미래 위한 그린 시그널 식품산업에 'ESG' 더하다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식품분야 ESG 확산 '탄소중립 협약식' 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11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미래를 위한 그린 시그널' 식품산업 ESG를 더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식품산업 안에서의 '친환경'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美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시작된 ESG정책으로 세계 각국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에 연관된 주제이다.

이번 행사는 기초연설을 비롯해 'Green in Food', 'Green in Packaging', 'Green in Industry'의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와 질의응답(Q&A)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기초연설을 비롯해 'Green in Food', 'Green in Packaging', 'Green in Industry'의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와 질의응답(Q&A)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기초연설을 비롯해 'Green in Food', 'Green in Packaging', 'Green in Industry'의 3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세션마다 주제발표와 질의응답(Q&A)으로 구성됐다.

가는 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네슬레의 도전'이라는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CJ제일제당, 풀무원, 마켓컬리 등 국내 대기업과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독일농업협회(DLG), 고려대학교 관계자들이 각 세션에서 강연을 선보였다.

첫 번째 세션인 Green in Food에서는 풀무원 조상우 상무가 '풀무원의 ESG 관리방안과 지속가능한 식품 동향'을, 고려대학교 한재준 교수가 '대체육 관련 국내·외 연구 및 기술 동향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두 번째 세션인 Green in Packaging에서는 CJ제일제당 Grace Kim센터장이 '글로벌 포장 기술 트렌드와 자원순환 노력'을 독일의 대표적인 식품연구소의 프라운호퍼 IVV Martin Schlummer 팀장이 '친환경 소재 개발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인 Green in Industry에서는 마켓컬리 객경선 매니저가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에서의 친환경 포장 사례'

를, 독일농업협회(DLG) Simone Schiller 센터장이 '식품 폐기물 저감화-관련성 및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에 앞서 국내 식품분야 신학연의 ESG 경영유도와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풀무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와 청년창업기업, 연세대, 소비자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참여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식품분야 산·학·연 주요관계자 25명이 실시간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유튜브(국립TV, 아리랑TV), 페이스북 등으로 한·영 동시생방송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으며, 농식품부 주제별 영상을 편집·게시해 유튜브를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식품업계의 ESG가 기업경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며 "미래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와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17일 비대면 위촉식을 가졌다.

'스타청년농업인' 홍보대사 30명 선정... 전북은 8명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비대면 위촉식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연구 성과와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스타청년농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17일 비대면 위촉식을 가졌다.

스타청년농업인에는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인지도 높은 청년농업인 총 30인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가장 많은 8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의 보급과 소비 확대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타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 협력과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4회 참여 유도 및 활동 지원, 기술 창업 역량 강화와 사업화 지원,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하나 둘 성공 본보기가 만들어 가고 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위촉된 권태연 대표(더투르컴퍼니)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초보 청년농업인이나 예비 귀농인들이 식량작물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작년 재무제표 · 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검토결과 확인"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020년도 재무제표와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검토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회원사에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토방법은 협회 홈페이지(http://siljik.ca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해당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20년도 재무제표는 오는 7월 1일 입학공고부터 적용한다.

또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는 것으로 매년 8월 1일에 적용한다.

협회 관계자는 "입찰에 제공되는 중요한 자료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검토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1961년생 동갑내기 고객님 찾습니다

NH농협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이벤트... 내달 18일까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호)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1961년 농협과 동갑내기 고객님을 찾습니다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61년 8월 15일 농협 창립일과 생일이 같거나 1961년 동갑내기인 고객 본인 또는 가족, 친구, 지인이 댓글로 생일 축하 메시지 및 농협, 농업, 농촌과 관련된 사연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농협은행 공식 SNS에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농협 한우세트, 한국화채 농협 플라워박스 등을 제공한다.

장기호 본부장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농협은행 SNS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농협 60년 역사의 원동력인 농업인 고객을 위해 앞으로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년 농협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hnhonghyupbank)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h.nonghyupbank.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성 기자

전북인적자원개발

Skill-Up 간담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적위')는 17일 캠퍼스종합기술원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전주시 일지리청년정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를 비롯 전북지역 4개 공공훈련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캠퍼스종합기술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력양성 운영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훈련센터 사례발표를 통해 하반기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방안, 인산, 김제지역 등에서 올해 구직자 양성훈련 3개 과정 60명, 재직자 향상훈련 6개 과정 2043명 등 총 2108을 목표로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266명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운영의 박



17일 캠퍼스종합기술원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Skill-Up 간담회.

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과 관련 법 준수 및 공공이 추구 등 참여기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렴실천 서약을 했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편 전북인적위는 매년 도내 5인~299인 규모의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현황, 채용 및 훈련 수요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6~7월 약 2개월 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형 그린뉴딜'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필요 훈련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공공훈련센터 선정과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인력양성 유관기관 등이 알지리 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윤방섭 전북인적위 공동위원장(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원활한 직업훈련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변화하는 고용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서부산림청, 전 직원

적극행정 영상교육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17일 적극행정 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국가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를 맡은 김경희 강사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및 특강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의 집합이 불가함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적극행정의 동기부여와 국가보안의 중요성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의 적극행정 역량강화는 물론 국가보안의 필요성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서부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성능 브랜드 N, 전동화 무대 가속페달

현대차, 모터스포츠대회

'PURE ETCR' 출전

현대자동차 고성능 브랜드 N이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전동화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자동차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발레롱가(Vallelunga) 서킷에서 개최되는 PURE ETCR(Electric Touring Car Racing) 개막전에 벨로스터 N ETCR이 첫 경기를 치른다고 17일 밝혔다.

PURE ETCR은 복수의 제조사가 참여하는 최초의 순수 전기 투어링카 레이싱으로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맞이해 전기차 레이싱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배기가스 없는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된 모터스포츠 대회다.

이 대회는 단순히 전기 경주차만 출전하는 대회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에서 단독으로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공급 ▲전경기에 시계절용 단일 타이어 모델만을 사용 ▲항공 대신 수상 운송수단을 활용 ▲경기장 내 플라스크 사용 금지 등 광범위에 걸쳐 지속 가능한 모터스



포트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PURE ETCR 대회에는 기존 경주차에서 엔진이 포함된 구동계를 걷어내고 최고출력 500kW의 전기모터와 65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경주차들이 출전하게 된다. PURE ETCR 대회에는 ▲현대 벨로스터 N ETCR 외에도 ▲알파로메오 쥘리아 ETCR ▲쿠퍼라 e-레이서 등이 참가해 전동화 기술력을 겨룰 예정이다. PURE ETCR은 올 시즌 ▲8월 이탈리아 발레롱가를 시작으로 ▲7월 스페인 아리칸 ▲8월 덴마크 코펜하겐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10월 대한민국 인제(미정)에서 열리게 된다. /안주=이종복 기자

내년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지원 대상 모집

전북중기청,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재난 대비 강화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이 특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지원대상을 오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복합상권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022년도 지원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으로는 ▲재난 대비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우대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화재 공격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

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하며,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

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대상을 1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철저한 방역과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북 지역 다수의 전통시장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등 노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mas.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